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유대중연구소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②	5	③
6	②	7	①	8	③	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①	23	②	24	⑤	25	①
26	②	27	④	28	②	29	④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②		

해설

[1-3] 독서(독서론) 『서양 미술사』 독서 일지

1. [출제 의도] 독자의 책 선정 사유를 파악한다.

① 1문단에서 학생은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책을 선정하였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지문에 제시된 『서양 미술사』는 폼브리치의 저작이라고 제시되고 있을 뿐, 다수의 저자가 참여했다고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지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추천은 확인해볼 수 없다. ④ 지문에서 학생이 이전에 읽은 책이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지문에서 최신 학술 자료가 언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지문 1문단에 제시된 선정 사유에서 이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출제 의도] 활용된 독서 방법을 파악한다.

③ 지문에서 책의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책을 쓴 저자의 경험을 연결 짓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지문 2문단에서 저자가 서론에서 제시한 자신의 관점을 27장에서 해당 구절을 들며 다시금 설명하고 있다면 이 둘을 비교하여 읽으며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지문 3문단에서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아 1~7장, 8~28장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지문 마지막 문단에서 분량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루에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독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였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지문 3문단에서 책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출제 의도] 조인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⑤ <보기>는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존재하고,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문 ㉠에서 학생은 자신의 주관 없이 무비판적으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보기>를 바탕으로 할 비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학생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저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 부분이 책의 자료 정리에 관한 서

술 또한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에서 학생은 책이 유발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해설을 저자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보기>는 해설이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에 관련하여 할 조인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보기>는 책 저자의 해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며, ㉠에서 학생은 다양한 해설이 아닌 저자의 해설을 저자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균형있게 다룬 책보다 한 분야에 집중한 책을 읽는 게 좋다는 비판은 <보기>에도, ㉠에도 맞지 않는 조인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지문에서 학생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독서의 순서를 바꾸고 있기는 하나, <보기>는 저자의 해설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가 구성한 방식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4-9] 독서(사회) 광고의 효과 (연계 지문: 수능 특강 독서 144쪽)

4. [출제 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②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이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가 중요하다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시장에서 광고가 가지는 위치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였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 견해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④ 광고가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되어 있을 뿐,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 또한 나열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광고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다룰 뿐,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출제 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③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판매자가 있더라도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의 반대 예시로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 모든 판매자들이 동일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이에 비해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독점적 지위를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④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지만, 이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

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한다.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는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상품의 수요량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②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가 한계 소비 성향이므로,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는 것은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가 커질 것이라고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광고로 인해 소비가 촉진되어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가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7. [출제 의도] 내용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① (가)에 따르면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는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작다는 것으로, 가격을 올려도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구매자의 충성도를 높여 ㉠의 효과를 노린다. (나)에 따르면 광고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이는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 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의 결과로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또한 ㉢은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하는데, 이는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은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더 쉽게 홍보하고 경쟁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따라서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하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를 통해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낀 결과로 나타난다.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되는 것은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은 광고로 인해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하므로,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증가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8.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③ (나)에 따르면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는 것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드름 억제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현재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간다.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므로,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인 '을' 기업과는 다르게, '갑' 기업은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새로운 소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을 활용해 광고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따라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 광고가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는 것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갑' 기업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면 수요가 줄어드는 정도가 클 것이므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되므로 적절하다.

9.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⑤ 해당 문장에서 '들어간다'는 '어떤 일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투입되다'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반입되다'는 '운반되어 들어오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②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삽입되다'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가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③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영입되다'는 '회사나 조직의 일원으로 맞아들어지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④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주입되다'는 '홀려 들어가도록 부어져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0-13] 독서(인문) 반자유의지 논증과 논증에 대한 비판

10. [출제 의도] 본문에 제시된 관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 즉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말한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유틸론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물리적으로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② [접속어 '따라서' 주목] 1문단에 따르면, 유틸론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결정이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물리적 몸에만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뇌는 물리적 몸에만 대응하므로, 유틸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볼 것이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고 말한다. ④ [Paraphrasing, 비물리적 실체 = 영혼] 1문단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관에서는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11. [출제 의도] 주위 문맥을 바탕으로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선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길잡이] 먼저 ㉠을 꾸미는 관행이와 주위 문맥을 통해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은 어떤 선택에 있어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하는 자유의지이다. 나의 선택이 이러한 ㉠에 해당한다면 내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어도, 되어있지 않아도 자유의지의 산물이 된다. 다음으로 ㉡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의 내용을 끌어와야 한다. ㉡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조건과 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이다.

④ ㉡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조건과 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의 들쭉 조건과 충돌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교체, 없다 → 있다] ㉠은 어떤 선택에 있어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하는 자유의지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가 있을 수 있다. ② [교체, 없다 → 있다] ㉡가 충족하는 조건 중 하나에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가 있을 수 있다. ③ [교체, 없다 → 있다] 나의 선택이 ㉠에 해당한다면 내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어도, 되어있지 않아도 자유의지의 산물이 된다. 따라서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어도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가 있을 수 있다. ⑤ [교체, 없다 → 있다]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에서 말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선택이 자신이 하고자 원해서 한 선택인 ㉠에 해당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 역시 있을 수 있다.

12. [출제 의도] 논증 비판의 핵심 내용과 연결지어 이유를 추론한다.

[길잡이] ㉠을 결론으로 설정하고 ㉡의 앞 내용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앞 내용을 읽을 때, '선택의 주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이라는 위당을 확인하고 4 문단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과 Paraphrasing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5문단 내용에 따르면,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이라 가정한다면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선지가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이라 가정한다면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내용은 ㉡의 이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 ②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의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이유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선지는 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어떻게 자유의지의 산물인지에 대한 이유이다. 따라서 ㉡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 의도] <보기>의 내용을 읽고 적용된 내용을 파악 및 추론한다.

[길잡이] 우선, H의 가설 내용은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또 다른 신경 사건이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또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는 것은 매번 선결정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H의 가설이 만약 입증된다면 (매번의 선결정이 일어났다면) 무작위 가설은 거짓이며, 선결정 가설은 참이 된다. 하지만, H의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어떤 선택에서 무작위가 존재하더라도,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과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의 사례에서 무작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무작위가 성립하면서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으므로, 반자유주의자를 비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반자유주의자의 입장인,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즉,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오답 풀이]

① H의 가설은 인간이 임의의 결정을 내릴 때, 즉 선택 시점에서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이 있기 전 또 다른 신경 사건이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매번 선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이 되므로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이것은 임의의 선택이 단지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무작위 가정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이 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선택의 사례에서, 무작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학생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에서 무작위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17] 독서(기술) 메타버스

14. [출제 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 여부를 확인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가상 현실 장갑이 아바타의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자의 감각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감각 전달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고, 3문단에서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장치임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HMD는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로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라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5. [출제 의도] 글의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③ 4문단에서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하는 것은 압력 센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장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하는 것이지, 아바타의 이동 방향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16.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① 지문에 따르면 동작 추적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센서이다. <보기>의 키넥트 센서 또한 동작 추적 센서의 일종으로 사용자를 검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의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일종이고, 지문에 따르면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센서로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중 하나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보기>의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일종이고, 지문에 따르면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과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키넥트 센서는 <그림>과 같은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해당 <그림>에서 얼굴에 배경된 연결점은 얼굴 중앙에 위치한 1개뿐으로 눈썹이나 입의 움직임과 같은 표정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보기>의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일종이고,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와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통해 3D 골격 이미지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작 추적 센서의 기능인 동작 파악을 골격 이미지를 통해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7.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① 지문 해당 부분과 선지에서 모두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지문 해당 부분에서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선지와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③ 지문 해당 부분에서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선지와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④ 지문 해당 부분에서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선지와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⑤ 지문 해당 부분에서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선지와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18~21] 문학(고전소설) 작자 미상, ‘배비장전’ (연제 지문 : 수능특강 143쪽)

18. [출제 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④ ‘사공’은 ‘배 비장’에게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러 가시는 터인데,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발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 앞부분 진술인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이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으나, 이 발화를 바탕으로 ‘사공’이 낯선 이, 다시 말해 ‘배 비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사공’이 낯선 이인 ‘배 비장’에게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사공은 무낭청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라는 서술자의 설명이 어색해진다. 무엇보다 경계심을 가지는 ‘사공’이 ‘배 비장’이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언급하며 배를 태워줄 것을 부탁하는 것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승며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라고 발화하지는 않을 것을 바탕으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지 않음을 판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집’은 ‘배 비장’에게 “양반이든 남부유별 예의염지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낯잠 자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라고 발화한다. 이 발화를 통해 ‘계집’은 ‘배 비장’의 행동 및 어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발화에는 ‘배비장’의 양반집지 못한 태도(=남

녀유별 예의염지를 모르는 태도)에 대한 계집의 비판적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배 비장’은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라는 계집의 질문에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이라고 답하는데, 이는 본인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을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배 비장’은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배 비장’이 본인의 이름을 숨기려는 이유를 앞선 ‘계집’의 “요사이 세력이 뿔뿔줄 같은 배비장도 কে 속 귀신이 뉘 뵈한 일 못 들었습나?”의 발화에 대한 ‘배 비장’의 부끄럽고 분한 마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었다면 작품을 완벽하게 읽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계집’은 “올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배 비장’이 궁급해 하던 서울로 가는 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배 비장’이 “부도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가 없다”며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사공’에게 언급하는데, 이 발화를 들은 ‘사공’은 “당신 정경이 불량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승며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면서 ‘배 비장’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준다. 이러한 해결책 제시는 그 자체로 ‘배 비장’에 대한 ‘사공’의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며, “당신 정경이 불량하오.”라는 ‘사공’의 명시적인 발화를 통해 ‘사공’이 ‘배 비장’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다.

19. [출제 의도] 작중 인물의 발화 맥락을 파악한다.

④ ㉠ ‘어보시오’는 맥락상 ‘계집’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다. ‘어보시오’가 ‘예사 높임’의 일종임을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구절 직전 서술자의 서술 중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를 통해 이 표현이 상대의 기본을 끌어주기 위해 ‘배 비장’이 사용한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노형’은 ‘사공’을 높여 이르는 표현이다. ‘노형’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대명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벌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라는 직전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이 표현이 상대의 기본을 끌어주기 위해 ‘배 비장’이 사용한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어보게’는 ‘배 비장’이 ‘계집’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어보게’가 상대를 하대하는 표현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발화 직후 ‘계집’이 “한참 물고르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물”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표현이 최소한 ‘상대의 기본을 끌어주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가 발화되기 전에 ‘계집’이 ‘기본이 풀려야 하는 상태’라고 불어지기도 없으므로, 이 표현이 정답일 수 있음을 특정할 수 있다. ㉣ ‘이 사람’은 ‘배 비장’이 ‘계집’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이 발화 직후 ‘계집’이 ‘배 비장’에게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이 표현이 ‘상대의 기본을 끌어 주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표현이 ‘계집’의 기본을 끌어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집이 실제로 기본이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 비장’을 하나는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도록 하자) ㉤ ‘어이’는 ‘배 비장’이 ‘사공’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이 발화 직후의 “사공이 반말이 비위가 틀러”라는 서술자의 진술로 미루어, 이 표현이 ‘배 비장’이 ‘사공’의 기본을 끌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와 마찬가지로, ㉡가 발화되기 전에 ‘사공’이 ‘기본이 풀려야 하는 상태’라고 불어지기도 없으므로, 이 표현이 정답일 수 있음을 특정할 수 있다.

20. [출제 의도] 주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제주도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배 비장’이 이 말을 듣고, 사공을 통해 이 배가 오는 제주도를 떠나 해남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공에게 “내가 서울 사는 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라며 배를 태워 주라고 부탁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배는 주인공인 배 비장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공인 ‘배 비장’이 ‘부도 병환 급보’에 대해 언급하기

는 하지만, 부모의 병환 소식을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서 들은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제시된 작품 내용만을 바탕으로, 실제로 ‘배 비장’이 언급한 ‘부도 병환 급보’가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는 ‘배 비장’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준비된 배가 아니다. 만약 이 배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다면 ‘배 비장’이 굳이 사공에게 배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을 리 없다. ④ 주인공인 ‘배 비장’은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언급하며 배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공’에게 “경제적 보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배 비장’의 발화 중 사용된 ‘적선’이라는 단어가 이 발화 맥락에서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음에 유의하도록 하자. ⑤ 주인공인 ‘배 비장’이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배를 타는 것은 아니다.

21.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④ ‘배 비장’은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까.”라는 ‘계집’의 발화를 듣고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라고 되묻는다. 이 발화를 ‘서울로 가고자 하는데, 바로 가는 배가 없는 상황’에 대한 ‘배 비장’의 한탄, 혹은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는 의도의 표현 정도로 읽어낼 수는 있으나, 이 발화를 준거로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배 비장’의 모습을 읽어낼 수는 없다. 만약 이 발화 시점에 ‘배 비장’이 본인의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서울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사오 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반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배 비장’은 본인이 불렀는데 대답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는 계집을 향해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라고 발화하는데, 이 발화에 대한 서술자의 “책망 걸 못겠다.”라는 설명을 통해 비장이 계집을 이 발화를 통해 책망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한편 ‘배 비장’의 이 발화 행위는 <보기>에 제시된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과 연결지어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를 통해 선지 앞 부분에서 제시되는 ‘배 비장’의 태도가 작품에 실제함을 알 수 있고 ‘지방이라고’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를 연결짓는 데, ‘하대를 하다가’와 ‘제주도 사람을 알고 있음’을 연결짓는 데 전혀 무리가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배 비장’은 ‘계집’의 이야기를 듣고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하기를 하고 싶진 않았으나, ‘해는 서산에 걸리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 ‘사파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배 비장’은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계집’에게 다시 말을 건네는데, 이를 통해 ‘배 비장’이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배 비장’은 ‘사공’에게 “어정정하게” 말을 건넸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히! 내가 그저 혼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라며 이에 대해 후회하고 어벌을 고쳐다. 여기에서 ‘충몽’을 ‘양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와 연결 지을 수 있고, 이 태도를 반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27] 문학(현대소설+시나리오) 오영수 ‘갯마을’ (비연제)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비연제)

22.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① [A]의 “그의 머느리 말에 의하면~들어갔다고 한다.”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몇몇 집을 휩쓸던 밤에 ‘윤 노인’이 행했던 행적을 ‘머느리’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A]에서는 ‘윤 노인의 머느리’의 말을 인용하여 폭풍이 치던 밤에 일어난 사건 정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윤 노인’이나 ‘머느리’의 내면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A]에서는 ‘윤 노인’의 회상에 대한 전말을 전달하고 있을 뿐, 특정 인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는 ‘윤 노인’의 행동과 행적에 대한 사항만 나타나 있을 뿐, ‘윤 노인’이나 다른 특정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

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는 전지적 서술자가 '윤 노인'이 희생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서술자가 달라져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 의도] 작품 속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② 뒷글에서 '두 노인'은 구름이 해를 덮고 바람이 막 그치며, 니율이 걸걸 커져서 물결 갯벌새를 풍기는 자연 현상을 지각하고 서로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진다'. 이를 통해 '두 노인'은 현재 일어난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뒷글에서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노인'이 우연히 만났다고 볼 수 없으며,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고 했으므로 ㉠(그들의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③ '두 노인'은 ㉠(그들의 경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다 서로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질 뿐,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두 노인'은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다고 했으며, '윤'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노인'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두 노인'이 회의감을 갖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뒷글에서 '두 노인'은 ㉠(그들의 경험)을 환기하며,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뼈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라...'라고 말한다. 이는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드러낸 것이므로,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 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⑤ <보기>에서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B]에서 '물웃'이나 '바다' 등은 '해순'과 '아낙네'에게 있어 살기 위한 수단이며, 시련(가족들의 행방불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서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물들이 '똥배만 지나가고 뽕이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은 행방불명된 가족들이 혹시나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바람을 내재하고 있는 것일 뿐, 인물들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확신을 제공하는 장치는 아니므로 해당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B]에서 '고둥이 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고'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고둥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 ② [B]에서 '후리막 주인이 신문물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이 준 후 마을은 수라장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신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③ [B]에서 '해순'과 '아낙네들'은 성구와 가족을 바다에서 잃었지만 살기 위해 바다에 나가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바다'는 '해순'과 '아낙네들'에게 있어 시련을 주는 공간임과 동시에 생활의 방편을 제공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④ [B]에서 시련 속에서도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순'과 '아낙네들'은 '물웃'을 입고 바다로 나가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는 모습은 자신과 남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해순'과 '아낙네들'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므로, '물웃'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해순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5.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한다.

① S#19와 S#20에서 점차 악화되는 날씨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S#21에서는 이를 배경으로 하여 다급한 모습의 '해순'을 보여 준다. 이처럼 다급하게 달려가는 '해순'의 행위는 점차 악화되는 날씨와 성구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다급해진 '해순'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S#24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과 치열한 성구의 모습을 볼 때, S#22에서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 '해순'이 비틀거리면서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성구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 당혹을 지키려는 의무감 때문은 아니다. ③ S#22에서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잠시 후 순임이가 울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해순'은 '순임'의 등장에도 서낭님께 기원을 계속하며 멈추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S#25에서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여 '계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것은 성구를 비롯해 바다로 나간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공통된 바람을 보여 준다. 해당 장면에서 '해순'과 '순임'이 다른 아낙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S#26에서 '순임'은 '윤 노인'에게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가요...'라고 말하며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S#27 내용에서 '윤 노인'은 '빈 배에 걸려 있는 그물을 벗기기' 위해 나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순임'이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 의도] 작품 속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② S#18에서는 점점 커 가는 파도가 추항을 뒤엎는 모습에 걱정하거나 뛰어나오거나 분주해 하는 '가족들', '사람들', '아낙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 나타난 여러 장소 속 인물들('가족들', '사람들', '아낙들')은 악화된 날씨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라는 공통된 심리를 가지고 행동할 뿐이지, 각 인물들('가족들', '사람들', '아낙들')의 행동에 있어 상반된 의미가 내재되어 드러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S#18에서는 악화된 날씨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장소의 인물들('가족들', '사람들', '아낙들')의 행동과 모습을 연결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어수선한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S#24에서는 특정 인물의 대사 없이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 '치열한 성구의 얼굴' 등과 같이 인물의 외양과 장면만을 제시함으로써 절박하고 치열한 성구의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S#24에서는 '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철의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 줌으로써 비바람에 맞서는 치열한 성철의 모습을 더욱 부각하여 나타내고 있다. ⑤ S#24에서는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 '분주한 선원들의 모습', '흔들리는 뗏사람들...' 등과 같이 파도로 인해 위태로운 선원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27. [출제 의도] 외제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④ (가)의 ①를 통해 지난 밤 비바람과 파도가 매우 거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의 S#28에서 당목의 '가지'가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형은 밤새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쳐온 상황을 당목의 가지가 꺾이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주어 폭풍우의 매서움과 마을 사람들이 처한 비극적인 처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보여줄 뿐, (당목의 가지가 꺾이는 것이) 등장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와 (나)에서도 등장인물들은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인물 간 갈등을 겪거나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의 ②에서 기상이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서술자의 서술로 제시하고 있다면, (나)의 S#14에서는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인물의 대사로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극중 상황을 인물의 구체적인 심리가 반영된 대사로 나타내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② (가)의 ⑤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비유적(바다의 아우성)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나)의 S#15-S#17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갯마을과 바다의 시각적 모습('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복', '바위', '축막' 등)으로 변형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상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여 보여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③ (가)의 ③에서는 '정경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경을 통해 '중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청

습을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면, (나)의 S#22, S#25에서는 '해순'과 '순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성황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여러 장면으로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③ 내용을 (나)의 S#22, S#25에서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변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가)의 ④에서는 폭풍우가 그친 바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나)에서는 S#28을 오버랩한 후 S#29로 연결(폭풍우가 거센 장면들 오버랩한 후 폭풍우가 물러가 잠잠해진 장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변형하여 나타내고 있다. 폭풍우가 물러갔다는 하나의 상황을 비바람이 거센 전날 밤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을 오버랩으로 연결하여 나타냄으로써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더욱 부각할 수 있기에 하나의 상황을 오버랩을 활용하여 변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8~31] 문학(현대시) 오광환, '중가' (원제 지문: 수능특강 296쪽)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비연계)

28. [출제 의도] 작품에 제시된 구절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파악한다.

②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을 평상시에는 곱말이 나도록 버려두다가 '세살날'에는 갑자기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중가의 귀위외식을 풍자한 것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진손들은 서로 '싸우고 쪼고 헤어져' '커미 일 터지듯 헤어져 나'간다. 이는 중가의 변성이 아니라 중가의 분열된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과거 중가의 위세와 그 횡포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도 중가 뒤란'에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것은 당시 횡포의 정도가 심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는 중가의 횡포를 비판한 것이지 화자의 시기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중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없고 재주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⑤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가는 중가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29. [출제 의도] 작품의 부분 내의 시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한다

④ '악보'는 '노래'의 성격이다. 즉,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약해졌음을 말한다. 또한 '노래는 심장이 박힌다' 따라서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넣는다는 것은 이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노래'와 '이야기'가 분리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없다. ②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귀신'을 '끓어 오르도록' 하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는 '노래'와 '이야기'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노래는 심장이 박힌다'는 것은 '말'에 '노래'의 성격이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⑤ [A]는 '이야기'에서 '노래'가 사라졌을 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30.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과 그 의미를 파악한다.

⑤ (가)에서는 '중가'의 과거 횡포를 드러내면서 '지금도 중가 뒤란'에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 횡포로 인한 결과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때의 '지금도'는 그 횡포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중가'의 '불변성'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위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가'의 변화를 부각한다. (나)에서는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뀔수록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음을 안타까워한다. 이는 '노래'가 사라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의 생명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성격이 약화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정경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경을 통해 '중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청

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큰문출판사 연구소에 있습니다.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가)는 '돌담'으로 사방을 가린 '검은 기와집'으로 '종가'를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가의 폐쇄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시에 '심장의 박동', 즉 '노래'의 성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노래는 '격정의 상처'를 치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덧나게 하기 때문에 '이야기'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때의 '그러나'는 시상을 전환하여 '노래'와 '이야기'가 '긴밀히 결합'되어야 함을 부각하고 있다. ④ (나)는 '처음'이 부른 '노래'가 가진 '귀신을 쫓아 없뜨리게' 하는 힘과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힘을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래'가 사라진 '가사'는 힘이 없고 '노래'만으로는 '격정의 상처'를 다스릴 수 없음을 통해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31.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나)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난다는 것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 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노래의 성격이 과잉되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질끈도 풀준도 한대 열리어 닐링거된다'와 같이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는 과거에 종가가 '동네 백성들'을 함부로 핍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기>의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서는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고 말한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하며 동시에 '이야기'도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는 것은 시에 노래와 이야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았던 것으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 따르면 (가)는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나)에 따르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즉, (나)는 (가)에 담긴 상처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로 창작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32~34] 문학(고전시가) 허난설헌, '규원가' (연계 지문 : 수능특강 61쪽) / 작자 미상, '새 위에 우뚝 선~' (비연계)

32. [출제 의도] 작품을 나타내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④ [A]의 경우 '봄바람 가을 물'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가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민화안'에서 '면복가중'이 된 화자의 달라진 처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B]의 경우 '겨울밤, 여름날'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가 활용되는 하였으나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인 베들의 울, 북을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베들의 울에 북이 지나가듯)하였다. ② [B]에서는 '차고 찬', '길고 긴'과 같이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겨울과 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성(차가운 겨울 밤, 긴 여름 낮)을 강조하였다. ③ [C]에서는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를 통해 소나무와 버들을 표현함으로써, 두 대상의 움직임은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⑤ [B]의 '차고 찬 계절', '길고 길 계절', [C]의 '흔덕흔덕', '흔들흔들'은 각각 대구가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대구의 활용이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적절하다.

33. [출제 의도] 작품 주요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② 화자는 임의 부재에 따라 촉발된 외로움, 슬픔 등의 정서를 달래고자 거문고를 타지만, 이러한 시름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이에 화자는 잠을 청해 꿈에서라도 임을

보고자 한다. 따라서 '꿈에나 보려 하니'라는 구절을 '화자가 문제를 현실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꿈'을 '호릿한 기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장한유협 경박자'를 만난 것을 '호릿한 기억'으로 이해할 경우 '당시의 용신하기 살얼음 다지는 듯'이라는 화자의 진술이 설명되지 않는다. '만난 것'에 관련된 기억이 호릿한 상황에서 당시의 마음 씀씀이가 어땠는지를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③ 화자는 작중에서 (그 임이 이상적이든, 그렇지 않든) 혼인 전에 '임'과의 만남을 기대한 적이 없다. 다만 혼인 이후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남편과의 재회를 고대할 뿐이다. 따라서 ㉠이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화자는 임과 이별했다는 것을 망각한 바 없으므로 ㉡이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없다. 화자가 이별을 망각했다면, 이렇게 슬퍼할 이유조차 없을 것이다. ④ '장한유협 경박자'와 혼인을 한 것은 화자의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자명하므로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을 두고 '꿈' 일어난 일을 단정하고 있다고 진술할 수는 없다. 화자는 꿈에서 임을 보고자 할 뿐이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⑤ 화자는 '삼생의 원임', '월하의 연분'으로 '장한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고 진술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임을 남편으로 맞은 것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에서는 꿈에서라도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 혹은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데, 선지의 진술인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는 이에 완전히 어긋난다. 작품에서 '다시 임을 만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이 우려스럽구나!'와 같은 화자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어야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이야기할 수 있을텐데, 이는 작품 전체의 맥락에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34.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뒤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거문고를 타는 상황에서 '부용장(=연꽃무늬가 그려진 휘장을 친 방)'에 화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어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의 발화이다. 이를 두고,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의 화자'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만약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화자였다면, 본인이 켜는 거문고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리겠느냐'는 설의적 표현의 발화를 할 리 없을 것이다.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데 본인의 거문고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화자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선지를 단편적으로 읽고, '적막하니가 내면에 몰입하는 화자겠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해당 구절의 전후를 고려하여, 발화의 맥락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선지를 판정에 나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실술(=귀뚜라미)이 상에 '운다'며 자신의 슬픈 감정을 실술에 이입하고 있고, 이를 화자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를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린다고 표현하는데, 임을 그리워 하며 우는 스스로의 모습을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뺨죽'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나무'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는 '삼춘화류 호시절'의 아름다운 경치가 시름없다(=자신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이는 화자의 쓸쓸한 내면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버들'은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동질성을 발견한 소재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화자는 삼춘화류 호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부와의 단절감은 아니지 않나?'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선지를 판단했다면 3점 문제를 그냥 날려버렸어야 한다. 문학 선지를 판정할 때, 단어만 보고 선지를 판정하려고 들지 말고, 작품 맥락을 고려하여 선지를 판정하려는 습관을 들여야만 점수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지지 말자. ⑤ (나)의 '후루룩 뺨죽'하는 '입하고 코는 <보기>의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의양'과 연결지어 볼 수 있으므로, '슬픔과 거리를 두는 화자의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다. 반면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슬픔과 거리를 두는 화자의 모습'으로 읽어내기에는 어색해한다. <보기>에서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라는 설명이 (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특정되는 것에 유의했다면 (가)에 관련된 판단을 가볍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④	37	②	38	③	39	②
40	③	41	⑤	42	⑤	43	①	44	④
45	④								

해설

[35-37] 화법

35. [출제 의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을 파악한다.
 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 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에서,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취자에게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견해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방송의 끝 부분에 감사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방송 진행자가 청취자에게 정중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감사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중심 화제를 일상적 소재에 비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36. [출제 의도] 방송 진행자의 계획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④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화제의 예로 '날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인적 감정, 고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을 활용한 구체적인 발화 내용이 방송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듣고 해결을 도와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통하지 않아 많이 속상했었어요.'를 통해, 사연 상황으로 인해 사연 신청자가 느꼈을 감정을 언급하였다. ③ 2문단에서 사연 속 문제 상황의 원인으로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자신의 고민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원인이 돼요.'를 제시하였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하였다. ⑤ 4문단에 '여러분이 조언하고 싶은 말이나 소감을 청취자 게시판에 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 의도] 듣기 전략을 확인한다.

② <보기>의 청취자가 친구와 대화할 때 의무감을 느꼈다는 것은 방송 진행자가 2문단에서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자신의 고민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원인'이라고 진술한 것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지의 진술과 같이 진행자가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힌 적도 없으며, <보기>의 청취자가 이와 같은 내용에 공감한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청취자가 자신의 '친구'와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자기표현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자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청취자는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진행자의 조언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④ <보기>에서 '앞으로 제가 대화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밝힌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방송에서 얻은 정보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⑤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연 신청자 ○○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 진행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38-42] 화법·작문

38. [출제 의도]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③ (가)에서 '첫 협상'이 개최된 이유 '주인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

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즉, 글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첫 협상'이 개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내용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의 목적인 '주민 복지 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 주민 의견 수렴 참여 방법인 '시청 누리집'에 접속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 첫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부지의 면적, 인구 규모'가 부지 선정의 기준으로 고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④ 4문단에 새로 건립될 주민 복지 센터의 공간 활용을 증별로 밝히고 있으며, 3층의 경우 주민 선호도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결정하되 의견 수렴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후속 협상에서 이를 다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

39. [출제 의도] 내용 조직 방법을 파악한다.

② 2문단에서는 시청에서 주민 복지 센터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거리, 인구 증가, 확장의 불가능함 등을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는 시청의 여러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분류의 설명 방법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 ③ 2문단에서는 Y동과 Z동이 겪는 문제들을 대조하는 설명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Y동과 Z동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는 주민 복지 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상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나누어 밝히는 분석의 설명 방법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 ⑤ 4문단에서는 지어질 복지 센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하위 시설을 증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설치가 완료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아니다.

40. [출제 의도] 독자의 반응을 파악한다.

③ 소식지인 (가)에서 소개한 '주민 복지 센터 건립 위치'는, (가)에 명시되어 있듯 '부지의 면적,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Z동 부지에 건설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Z동의 중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주민 복지 센터 건립 위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시청 담당자의 첫 발화에서 첫 협상과 같이 후속 협상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를 통해 동별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동 대표에 전달됨을 알 수 있다. [A]에서 Y동 대표는 Y동의 의견 수렴 결과로 '우리 동 주민들의 1순위는 도서관이 있습니다.'를 밝히고 있다. ④ [A]에서 Z동 대표의 첫 발화 '우리 동에서도 도서관을 선호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니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⑤ [A]에서 Z동 대표는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협상'에서 결정된 신설된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41. [출제 의도] 협상의 전략을 파악한다.

⑤ ㉠은 Y동의 체육 시설 이용 시 Y동에게는 큰 수익이 발생하나, Z동 주민들에게는 복지 센터 내 체육 시설 이용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함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을 통해 Z동 측이 Y동에 비해 불균형적인 손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여, Z동 측의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때 Z동 측의 요구사항은 '유급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Y동만의 입장인 '도서관 설치'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화이며, 양보할 수 있는 범위나 상대 제안과의 절충을 의도한 발화라고 볼 수 없다. ② ㉠에서는 Y동의 기존 입장 그대로 '체육 시설 대신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상대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거나 자신의 제안을 조정할 것이 아니다. ③ ㉠에서는 체육 시설 설치의 실현 가능성을 논하고 있지 않다. ④ ㉠에서는 'Z동 입장에서, Y동의 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손해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Z동 스스로가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Y동에 대해 Z동 측의 주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2. [출제 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한다.

⑤ 해당 기사에는 필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일어난 사건을 위주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이 드러난다. 이는 기사의 장르적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기사의 1문단에 협상이 개최된 장소와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독자를 고려한 것이며, 기사의 양식적 특징 중 '전론' 부분의 특성에 해당하기도 한다. ② 기사의 2문단에 제시된 협상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협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 ③ 기사의 1문단, 첫 문장에 협상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1문단(기사의 '전론')만 읽어도 다루고 있는 사안의 결과를 독자들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④ 기사의 2문단에 제시된 협상 결과에서, 협상에 참여한 두 동 대표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43-45] 작문 (연계 지문 : 수능 완성 191쪽)

43. [출제 의도] 글쓰기 방법을 파악한다.

① 'II. 본론'의 '1. 현황'에서 구체적 수치가 기재된 표를 통해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오답 풀이]

② 다른 서적, 논문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문헌 자료 분석'은 본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II. 본론'의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한 가지만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본 보고서에는 'I. 서론'에서 조사 방법인 '설문 조사', 조사 대상인 '전교생'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조사 방법과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보고서의 특정한 항목(장, 절, 항)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본 보고서에서는 전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44. [출제 의도] 생성된 내용이 구체화된 양상을 파악한다.

④ 'II. 본론'의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에서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하고 있지만, 이는 '조합원 비율이 감소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본문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게 된 과정이 분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서'도 결과로 조합원 비율이 감소했다'는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II. 본론'의 '1. 현황'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협동 매점의 운영 시간(점심시간), 수익금 사용처(○○ 환경 단체에 기부)가 설명되어 있다. 이는 ㉠인 '협동조합의 현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② 'II. 본론'의 '1. 현황'에서 전교생 대비 조합원 비율 및 협동 매점 수익금의 변동 추이를 통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 '협동조합의 현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③ 'II. 본론'의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에서 문제점을 2가지 논하고 있다. 하나는 조합원 비율 감소로 인한 협동조합 유지의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수익금이 줄어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인 기부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인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⑤ 'II. 본론'의 '2.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에서 문제 2가지에 대한 원인을 각각 밝히고 있다. 이는 ㉣인 '문제'의 원인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45. [출제 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쓴다.

④ ㉠에는 협동 매점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이나, 이에 대한 해소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의 내용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도출할 수 있어도, 협동 매점에 대한 불만 사항 등을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통해 협동 매점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을 통해 학교 협동조합의 수익금이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조합원을 위한 체점 활동비 지원'이 협동조합의 수익금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임을 밝힐 수 있으며, 이는 초고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을 통해 인근 학교에서 '도서 구입비 지원'이 조합원 복지를 증진하는 하나의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인용하여, 초고에서 논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조합원의 탈퇴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로 '도

서 구입비 지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㉓ ㄴ을 통해 인근 학교에서 'SNS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고에서는 협동 매출 수익이 감소하는 이유로 홍보의 부족과 불만의 누적을 들고 있다. 이때 ㄴ을 활용하여, SNS를 통해 홍보와 불만 사항의 파악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㉔ ㄷ을 통해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고에서는 홍보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ㄷ의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협동조합 홍보를 하여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②	37	④	38	⑤	39	①
40	②	41	③	42	③	43	⑤	44	⑤
45	②								

해설

35. [출제 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음절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용한다.

④ @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 음절 유형에 따르면 '강'과 '복'은 '자음+모음+자음'의 형태이므로 같은 음절 유형이 맞다. '목'과 '뫼' 역시 발음 기준 [목]으로 '자음+모음+자음'의 형태로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므로 두 음절이 다른 음절 유형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실중'은 [실중]이라고 발음하지만, 표기는 발음에 따르지 않는다. '실중'의 '실-'은 '실다'의 어근에서 비롯되고, '-중'은 '중상' 또는 '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실-'과 '-중'은 의미에 따라 형태를 고정하여 적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복소리'와 '국물'은 각각 [복소리]와 [국물]로 발음되므로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의 예로 볼 수 있다. ③ '나뭇잎'과 '잎새'는 표기된 글자인 '잎'으로 서로 연결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은 [닙]과 [입]이 되므로 서로 연결될 수 없다. ⑤ '복어'는 [부거]로 발음되므로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의 예이지만, '강변'은 [강변]으로 발음되므로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36. [출제 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음절 구조 제약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② ㉡는 '웃'에서 '울'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이는 [A]의 '중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에 해당한다. '울만'이 [운만]으로 비음화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므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한 번(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 한 번(비음화)이라는 서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굳이'가 [구지]가 되는 것은 구개음화 때문이다. 이는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교체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물약이' [물락이] 되는 것은 ㄴ결가와 유음화로 인한 것이다. 이는 모두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음운 변동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의 '값도'가 [갑도]가 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로 인한 것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A]의 '중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지만, 된소리되기는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 '끓는'이 [할른]이 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로 인한 것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지만, 유음화는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 의도] 접사의 특성과 유형을 이해한다.

④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중 '살리다, 입히다'는 주동사 '살다, 입다'에 사동 접사 '-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가 맞지만 '밀치다, 깨뜨리다'는 사동사가 아니다. '-치-'와 '-뜨리-'는 사동 접사가 아닌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단어에 사용된 접사의 공통점으로 사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는 용언의 어근 '넓-, 믿-,

크-, 지우-'에 접사 '-이-, -음, -기, -개'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설명은 적절하다.

② '끄덕이다, 출렁이다, 반짝거리다'는 부사 '끄덕, 출렁, 반짝'에 접사 '-이다, -대다, -거리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설명은 적절하다. ③ '술보, 낚시꾼, 멧쟁이, 장난꾸러기'에 쓰인 접사 '-보'는 '그러한 행위를 특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고, '-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한다.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고,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제시된 설명은 적절하다. ⑤ '부채질'은 명사 어근 '부채'에 접사 '-질'이 결합하여 명사 '부채질'이 파생되었고, '뫼나물'은 명사 어근 '나물'에 접사 '뫼-'이 결합하여 명사 '뫼나물'이 파생되었다. 또한 '휘감다'는 동사 '감다'에 접사 '휘-'가 결합하여 동사 '휘감다'가 파생되었고, '빼앗다'는 동사 '빼앗다'에 접사 '-기-'가 결합하여 동사 '빼앗기다'가 파생된 것이므로 제시된 단어들이 사용된 접사는 모두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38. [출제 의도] 겹문장에 쓰인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⑤ '형은 [동생이 찾아뵈러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는 관형절 [동생이 찾아뵈러던]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의 주체(동생)가 '찾아뵈러던' 높임의 대상(객체)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인 '선생님'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는 관형절 [편찮으시던]이 안긴문장이다. '편찮으시던'의 주체는 안은문장의 주어인 '어르신'이다. 이는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관형절 [고향에 계신]이 안긴문장이다. '계신'의 주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 '부모님'이다. 이는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는 관형절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이 아닌 안긴문장에 드러나는 문장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는 관형절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이 안긴문장이다. 안긴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실현된 겹문장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 의도] 중성 국어 조사의 쓰임을 이해한다.

① '드리(달리)'는 '들(체언)+이(주격 조사)'로 형태소 분석된다.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 앞 말의 받침이 연음된 것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쓰인 예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바를(받을)'은 '받(체언)+을(목적격 조사)'로 형태소 분석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후 앞 말의 받침이 연음된 형태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나뭇(나무의)'은 '나뭇(체언)+스(관형격 조사)'로 형태소 분석된다. 사물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스'가 결합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④ '물로(물로)'는 '물(체언)+로(부사격 조사)'로 분석된다. '로'로 끝나는 체언 '물' 뒤에 '로'가 결합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남금하(임금하시어)'는 '남금(체언)+하(호격 조사)'로 분석된다. 존대의 대상인 '남금'에 '하'가 결합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40-43] 매체

40. [출제 의도] 올바른 매체 수용 방법을 평가한다.

② (나)가 (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고려해보면, (나)의 '카드 1'과 '카드 2'는 각각 (가)에 제시된 '○○ 기관 보고서'와 '○○ 기관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와는 달리, (나)에서는 해당 통계를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자료로 표현하고 있을 뿐, 해당 통계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의 '카드 1', '카드 2'와 같은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신뢰할만한 자료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저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해결 방안의 근거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즉, 해결 방안의 구성에 다양한 이론이 종합되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한 왜곡 가능성의 확인은 불필요하다. ③ (나)에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 저조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편파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선지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화법과 작문 [4~7]'의 (가) 지문을 참고해 볼만 하다. ④ (가)와 (나)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4~7]'의 (다) 지문과 6번 문항을 참고할만하다. ⑤ (가)와 (나)에서는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가)와 (나)에서는 작성자의 주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있지는 않으며, '청소년의 사회 참여' 저조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41. [출제 의도]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파악한다.

③ (나)의 '카드 3'에서는 청소년의 이미지는 작게 그려져 있으며, 기관의 이미지는 작게 그려져 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비해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는 부족하다는 (가)의 내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카드 3'에 나타난 기관의 이미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상황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애초에 (가)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카드 1'에 사용된 통계 자료는 (가)의 '○○ 기관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응답을 담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적절하다. 이를 통해 다른 누구의 인식이 아닌, 청소년의 인식임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나)의 '카드 2'에는 (가)의 '○○ 기관 통계 자료'에 나타난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그래프를 시각화 되어 나타나있다. 이처럼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사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에, 문제 상황이 더 잘 드러난다. 한편,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도 통계 상황을 더 잘 드러내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수능 [8-10]'의 9번 문항을 참고해볼만 하다. ④ (나)의 '카드 4'에는 (가)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기관 중심의 활동'과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손과 손을 맞잡는 이미지로 그려내어 두 가지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적절하다. ⑤ (나)의 '카드 4'에 적힌 문구는 (가)의 마지막 단락에 제시된 '△△대 사회학과 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인용된 내용 속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 의도] 매체 자료에 사용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한다.

③ ㉢에 사용된 연결 어미 '-어-'는 앞 절의 내용이 뒤 절 내용의 목적이 아닌, 원인이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기사의 제목인 ㉠에서는 '어디인가?'에 '-ㄴ-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의 화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이를 통해 독자들이 글의 화제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② ㉡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사 '무려'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88.3%라는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의 '만들어져야'라는 부분에서 피동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누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내용(행위의 주체가 집중한 것)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집중한 것)는 내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⑤ ㉔에서는 '-다고'라는 부분을 통해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간접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 의도] 매체 자료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파악한다.

⑤ (나)에서는 '카드 4'를 통해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타나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카드 B'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의 구체적 방안을 추가한다면, 적절한 카드 뉴스 보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긴 하다. 하지만, '카드 A'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카드 A'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드 A'를 활용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카드 A'는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③ (나)에서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가 '카드 3'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한편, '카드 A'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는 있다. 청소년이 사회 참여 활동을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렵다는 식으로 보완할 수는 있다. ④ (나)에서는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카드 B'도 구체적인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방안을 담고 있을 뿐이기에, 이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한편, '카드 B'는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참여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에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를 알려 준다'는 활용 방안 자체는 적절하다.

[44-45] 매체

44. [출제 의도] 매체 자료 유형의 특성과 제작 과정을 파악한다.

⑤ (나)에 나타난 독자들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답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는 댓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끼리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답을 얻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사연 신청자는 웹툰 제작자에게 '독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잘 그려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였다. (가)의 웹툰 동아리 학생들은 이 요청을 반영하여 웹툰의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고 있다. ② (가)의 20□□.08.12.에 나타난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에서는 (나)의 독자들의 '공감' 반응이나 별점, 댓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에 달린 '공감', '댓글', '별점' 등을 통해 웹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③ (나)의 댓글란에서는 '과도'와 '숨사탕'이라는 닉네임을 지닌 독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드러내며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웹툰 하단에 제시된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이라는 문구와, 'http://www.○○○.com/board_03' 인터넷 주소에 밑줄이 처진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 의도]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 '하진'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웹툰이라는 매체 자료가 지닌 특성인, '장면이 세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활용하여, 두 사람의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나)에서는 세로로 분할된 연속적 장면을 배치하여 사연 신청자와 그 친구 사이의 거리, 심리적 변화 등을 드러내었으나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우주'와 '주혁'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 웹툰의 장면이 세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간이 지나는 것을 표현하고자 계획하였다. (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좌우로 분할된 장면의 가운데에 달력의 숫자를 그려 넣어 날짜 변화를 표현하였다. ③ (가)에서 '우주'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세로로 장면이 흘러갈수록) 좌측의 친구와 우측의 친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가)의 '하진'과 '주혁'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 사연을 보낸 학생의 감정을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 (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우측에 그려진 사연 신청자의 시간이 갈수록 안절부절하는 모습과 후회하는 모습이, 표정과 자세, 행위로 잘 표현되어 있다. ⑤ (가)에서 '하진'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웹툰의 마지막 부분에 사연 신청자의 얼굴 옆에 빈 말풍선을 배치하고, 아래에 "어려분이라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떤 말로 전하겠어요? 댓글로 적어주세요."라는 문구를 배치하여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고 있다.